‘순천형 치매 안심돌봄’으로 고령화 대비한다

순천시, 60세 이상 선별 검사 확대 등 조기 검진 활성화
소득 무관 진단비 등 지원…치매안심센터 중심 맞춤 관리

순천시가 고령화 사회 치매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치매 선별검사를 확대하고 치매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순천형 치매 안심돌봄’을 펼치기로 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치매안심센터에는 치매 추정 환자(5424명)의 63%인 3414명이 등록돼 관리받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순천지역 60세 이상 인구는 7만 2294명으로, 전체 인구의 25.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치매안심센터가 등록 관리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58.7%·2004명)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41.3%(1410명)는 요양원·병원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치매환자가 집에 머물더라도 지역사회에 잘 공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

완치가 어려운 치매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발견할수록 병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순천형 치매 안심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60세 이상 치매 선별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치매 진단비와 감별비 23만원을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한다.

순천시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협약병원(순천중앙병원)과 무료 치매 진단을 펼치고 있으며 ‘찾아가는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돌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야간 노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순천시의 치매 정책사업에는 ‘치매 원스톱 서비스’와 ‘송영(送迎) 서비스’가 있다.

순천 시민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순천시는 치매 치료관리비와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게 된다.

순천시가 ‘순천형 치매 안심돌봄’의 하나로 치매안심센터 ‘치매 예방교실’을 활성화한다. 〈순천시 제공〉

지난해부터는 모든 순천 시민(보훈대상자 제외)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차량 운전자에게 ‘치매 파트너 교육’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순천지회와 협업해 ‘송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안심택시 운전자는 환자와 일대일 연계돼 집과 보호기관에 안전하게 태워다주는 역할을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나이로 다가와 고령화에 따른 치매 정책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순천시는 치매 돌봄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는 등 신속하고 촘촘하게 치매 환자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청년사업가 모집

임대료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광양시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청년사업가(교육생)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최대 10명이며, 희망자는 12일까지 광양시청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다.

광양읍(전남도립미술관~광양역사문화관, 5일시장 일원)과 중마동(사랑병원~광양청년꿈터 일원)을 창업 예정지로 두는 경우 우대 선발한다.

거주 예정자는 최종 창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선발된 인원에게는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등 1인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추가 금액은 자부담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컨설팅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시행계획 수립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유학마을 조성 등 38개 사업

곡성군이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곡성군은 최근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인구감소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이상철 곡성군수와 실과장,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최종 용역 결과를 검토했다.

곡성군은 올해 2월부터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해, 행정,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곡성군은 2022~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등을 마련했다.

곡성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비전으로 ‘사람이 머무르고, 찾아오는 행복한 곡성!’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전략은 ▲인구활력 증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을 수립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 곡성형 유학마을 조성 등 38개의 핵심·중점 사업계획도 수립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해풍으로 말린 고흥 청정 건다시마 본격 출하

국물용 1㎏당 8천원선부터 경매…담백함·감칠맛 탁월

청정해역에서 생산해 해풍에 말린 고흥 건다시마가 위판을 시작했다.

고흥군은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지난 5일 금산면 오천 다시마위판장에서 건다시마 풍작기원제와 안전조업 기원을 위한 첫 위판 초매식을 가졌다.

다시마를 생산한 어민들은 해황 여건 안정과 어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제를 올리고 건다시마 첫 경매를 개시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올해 첫 위판을 시작한 ‘건다시마’를 살펴보고 있다. 〈고흥군 제공〉

위판 가격은 1㎏당 평균 80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됐으며 건다시마 37t이 위판장에 나왔다. 위판액은 2억 9000만 원상당이었다.

고흥에서 생산된 다시마는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탁월하며, 육상건조장에서 해풍으로 자연건조해 주로 담백하고 감칠맛을 내는 국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올해는 태풍 간접 영향으로 수확시기가 늦어져 수온 상승으로 인한 갯병 발생 및 엽체가 탈락이 우려되면서 전년 대비 9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산 다시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가 인력난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1인당 1회 5만원 지급

여수시가 청년들의 어학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지원기준은 1인당 1회 5만원 내로 연 2회까지며, 상반기 응시 건도 소급 지원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어학시험 응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청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청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완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여수시 청년들의 구직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남도로 여행을 떠나요

오는 7월8일 개장하는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 내달 8일 개장…입장료·주차료 무료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이 다음 달 8일 개장한다.

보성군은 해수욕장 개장(7월8일~8월27일)을 앞두고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는 소나무 숲을 스치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다. 입장료와 주차비는 무료이며, 야영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율포해수녹차센터와 회천수산물위판장, 보성비봉공룡공원, 비봉마리나, 바다낚시공원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성의 대표 관광지인 차밭과 봇재, 한국차박물관 등도 함께 찾으면 좋다.

보성군이 직영하는 율포해수녹차센터의 경우 3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욕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 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군은 다채로운 거리 공연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쾌적한 휴양지를 위해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시 시설 점검, 방역 활동 등으로 피서지 안전과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7박8일 숙박비·교통비 등 지원
광주·전남지역 외 만 18세 이상

광양시가 전남도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사업은 현지인처럼 여행하기, 여행의 일상화, 환경친화적 여행 등 로컬리안 여행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전남·광주 거주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광양여행 희망자로 참가자에게는 7박 8일 여행 기간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여행계획서 등을 16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자세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다.

시는 여행작가,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정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광양관광을 위한 SNS 홍보 과제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광지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광양시의 유일한 섬으로 남은 배알도. 뱀섬이라고 불렸던 배알도는 태인동 가장 북쪽이자 섬진강 하구에 있는 0.8ha·높이 25m의 바위섬으로 망덕산의 천자를 배알하는 천자봉조혈의 명당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광양시 제공〉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진정한 여행은 잠시 스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머물고 살아보는 것”이라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먹거리 등 광양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의 숨은 매력을 적극 홍보해 관광객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